회원제 운영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리는 국립현대미술관 유료회원제

방문가입(회원제 접수처) / 온라인가입(홈페이지)

일반회원 5만 원 / 특별회원 10만 원

회원혜택

과천관 무료입장(기획전 포함)

서울관 무료입장(기획전 포함)

덕수궁관 전시 관람료 할인(덕수궁 입장료 별도)

※ 단, 외부기관과의 공동주최 전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해의 작가와의 만남(연 1회)

미술관 아트샵, 카페테리아 5~10%할인

미술관 인근 레스토랑 10%할인

회원자녀를 위한 현대미술 프로그램 개설(연 2회)

국립현대미술관 웹진 Art:mu 온라인 발송. 미술관 교육, 문화행사, 학술행사 등 홍보물 제공

식음료 시설과천관(라운지디) 5% 할인

서울관(푸드코트, 카페테리아, 오설록) 10% 할인

제휴(공통)

동물원 입장료 30% 할인

서울랜드 자유이용권 5천 원 할인 미술관 인근 레스토랑 식음료 10% 할인

과천관 인근: 장미의 언덕

덕수궁관 인근: 길들여지기, 아하바브라카, 샤브궁샤브가, 스패뉴

서울관 인근: 사보텐

제휴(일반회원) 과천관 뮤지엄숍 10%할인(일부 품목 제외)

서울관(아트존, 미술관 자체 개발상품에 한함) 10% 할인

국립현대미술관 회원제 안내

제휴(특별회원)

과천관 뮤지엄숍 20%할인(일부 품목 제외)

서울관(아트존, 미술관 자체 개발상품에 한함) 20% 할인

교육 우선 접수 및 유료교육 수강료 할인

전시 개막식 및 오픈스튜디오 행사 초청

멤버쉽 라운지(서울관 교육동 3층) 이용

큐레이터 갤러리 투어(연 2회)

회원 전용 전시 해설 개최(연 2회)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국립현대미술관은 교육적 활동을 통해 관람객에게 의미 있는 미술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시와 소장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발·운영하는 다양한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은 현대미술과의 새로운 소통 방식을 제안합니다. 또한 전시연계 및 계기별 문화행사를 운영하여 문화예술의 가치를 실천하는 생활 속의 미술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교육프로그램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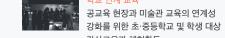
미술(관) 관련 및 타 분야 전문인 대상의



주부, 시니어, 직장인, 미술애호가 등

일반인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공교육 현장과 미술관 교육의 연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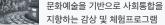


감상교육과 체험활동

기획전시 연계 교육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기획전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인·일반인, 어린이 등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린이미술관 Edu-Studio(과천관) 현대미술과의 소통을 위한 어린이 가족대상 문화예술교육 전문 공간



기획전시 및 상설전시 감상을 위한 작가소개 및 작품해설 프로그램

문화행사

전시 감상과 이해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공연, 대담회 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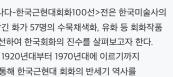
가정의 달, 문화의 달 등 계기별 문화행사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 참여방법 등은 www.mmca.go.kr 참조





<명화를 만나다-한국근현대회화100선>전은 한국미술사의 큰 업적을 남긴 화가 57명의 수묵채색화, 유화 등 회화작품 100점을 엄선하여 한국회화의 진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전시는 192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회화작품을 통해 한국근현대 회화의 반세기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현대미술의 역사 속에서 예술의 의미와 예술가의 지위 향상을 위해 공헌해 온 예술원회원들의 작품을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봄으로써, 원로 작가들의 삶과 작품세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전시이다.





<송수남>전 은 송수남의 기증품을 바탕으로 그의 평생에 걸친 화업을 돌아보기 위해 마련한 전시이다. 송수남은 60년대 수묵추상의 세계를 모색하였고, 이후 80년대에는 수묵화작업의 기수로서 선염과 파묵을 바탕으로 그의 독특한 산수화세계를 정립했다. 산수와 추상, 수묵과 채색, 종이와 캔버스 등 다양한 장르와 재료에 끊임없이 도전했던 그의 작품세계를 한 자리에서 조명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대미술 소장품기획전



근대미술 소장품기획전 <나는 세 개의 눈을 가졌다>는 일반인보다 더 깊게, 더 많이, 또 일반인과 달리 보는 자로서 예술가가 본 세상을 탐색한다. 이미 익숙해져 볼 수 없었던 일상의 아름다움과 물질문명시대의 미망(迷妄)을 꿰뚫어 보고, 일간실존을 묻고, 내적인 힘을 모아 생(生)의 진리를 표출하는 예술가와 그 작품 세계를 소개한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덕수궁관에서 사색적이고 절제된 정물화로 유명한 이탈리아 근대미술의 거장 조르조 모란디 (1890~1964)의 예술세계를 국내 최초로 소개한다.

이번 전시는 볼로냐 근대미술관의 주요 소장품인 모란디의 대표작 100여점을 엄선하여 선보이는 자리다. 볼로냐에서 태어난 모란디는 폴 세잔, 입체파, 미래파, 초현실주의와 같은 모더니즘과 지오토, 카라바지오 등의 전통을 흡수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양식-가정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작은 오브제들을 색채와 구성의 미묘한 변화로 화면 위에 재구축을 만들어냈다. 그의 양식은 20세기 미술이 끊임없이 추구한 새로움, 충격, 스펙터클에서 비껴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그의 작품들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소재를 취했지만, "현실보다 더 추상적인 것은 없다"는 작가의 말처럼, 개인적 삶의 이면은 물론 보편적 세계의 구조, 관계, 변화까지도 조용히 들여다보게 만드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장제작설치 프로젝트 장영혜중공업



장영혜중공업의 현장 제작 설치 장소는 제6전시실과 창고 갤러리, 그리고 두 공간을 연결하는 계단과 통로이다. 국립 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을 기념하여 장영혜중공업이 오랜만에 한국어로 제작한 11채널 HD 비디오 인스톨레이션이다.

자이트가이스트전 시대정신

국립현대미술관은 새로운 미술관의 개관을 맞이하여 지난 50여 년간 컬렉션 해 온 주요 소장품들과 주요 작가들의 작품들을 통해 총체적이며 일목요연하게 한국현대미술의 흐름을 정리하여 소개하는 전시를 진행한다. 전시를 통하여 한국 근 • 현대 미술의 흐름과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한진해운 박스 프로젝트>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박스를 예술가들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가득 채우기 위한 야심 찬 프로젝트이다. 서도호(1962~)는 서울대학교에서 동양화를 공부한 후, 미국 로드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과 예일 대학교에서 회화와 조각을 전공했으며 독창적이며, 흥미로운 개념의 정교한 조각, 설치, 영상 작업을 통해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왔다.





국립현대미술관은 현장제작 작품 설치 프로젝트 작가로 놀라운 상상력의 기계 생명체 작업으로 주목 받고 있는 최우림 (1970~)을 선정하였다. 최우람은 고고학적이며 과학적인 가상 이론을 바탕으로 첨단 기계 과학 문명 시대의 거대 도시가 드리우는 깊고 비밀스러운 어둠 속에서 자생적으로 탄생한 기계 생명체 작업으로 독보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하였다

미술관의 탄생: 건립기록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역사적인 건립과 개관을 준비하면서 그 주요과정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아카이브로 구성하는 장기 건립기록 프로젝트를 담아낸 전시이다. 사진기록은 노순택, 백승우 작가가 참여하였으며, 다큐멘터리 제작사 DK미디어가 영상기록을 담당하였고, 작가 양아치는 음향기록을 담은 설치작품을 선보인다.





이란 출신의 아티스트 겸 영화감독인 쉬린 네샤트(1957~) 의 회고전으로 작가의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의 작품들이 총 망라되는 대규모 전시이다. 남성과 여성,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예술과 사회를 주제를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세계로 승화한 작가의 예술적 여정이 사진, 비디오 인스톨레이션, 영화를 통해 소개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덴마크의 비디오 아티스트 예스퍼 유스트의 한국 첫 개인전. 이번 전시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최근작 <이것은 욕망의 풍경이다>(2013)를 포함하여 십여 년에 걸친 그의 주요 작품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선보인다. 작가는 상업영화에 필적하는 영상과 사운드, 그리고 밀도 있는 편집 기술을 바탕으로, 영화적 내러티브 이면에 존재하는 사람과 사람, 혹은 사람과 사물 사이의 미묘한 정서적 상호작용을 포착하고 그 모순적인 느낌을 극대화하여 관객에게 전해준다.



<Infinite Challenge>는 아시아 출신으로 전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성 뉴미디어 예술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이다. 김순기, 날리니 말라니, 슈리쳉, 틴틴 울리아, 쉴파 굽타, 차오 페이 등의 사진, 영상, 퍼포먼스,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자신의 새로운 표현영역을 확장해나가는 도전정신을 체험할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현대카드 컬쳐 프로젝트 15_국립현대미술관 젊은 건축가>전을 개최한다. 뉴욕 근대 미술관의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국제 네트워크의 하나로 참여하는 본 설치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의 젊은 건축가들을 발굴하고 나아가 이들을 국외에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같은 시기 열리는 전시에서 프로그램에 참가한 건축가들의 건축



세계를 살펴본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사)도코모모코리아가 공동 기획하는 이번 전시는 한국 근대건축의 역사적 의의와 오늘의 가치를 발견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서구 중심의 모더니즘 시각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생성되고 전개되었는지 건축이라는 매체를 통해 그 충돌과 확장의 궤적을 따라가 본다. 이번 전시는 '건축과 사건'을 키워드로 하여, 20세기 전반 우리 사회의 가장 역동적인 변화의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한다.





물질문명시대의 정신의 혼돈을 치유하고 사유와 명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창조적인 예술의 미덕 중 하나이다. 이번 전시의 출품 작품들은 세상의 가치와 변화의 속도를 비켜난 듯한 여유와 소박하지만 정제된 표현을 보여준다. 관객들은 한국현대미술이 보여주는 '한국적인 미감'의 단편을 통해 국가와 인종,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는 공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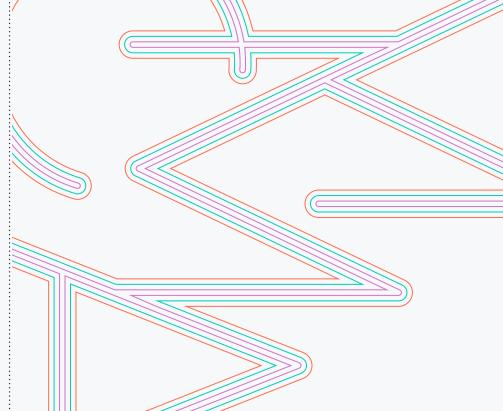
<정원>전은 자연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과 이상향에 대한 환상에서 출발한 '정원'의 구성요소와 화조화의 공통점에 주목하여 기획한 한국화 소장품 특별전이다. 차경(借景) 으로서의 풍경과 화조화의 소재들은 근대 이후 격변하는 시대상황 속에서도 한국화의 소재로 꾸준히 제작되어 왔다. 재료, 양식 등에서 자유로운 동시대 한국작가들이 새롭게 재해석한 정원의 모습을 기대해볼 만한 전시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전시안내



독일 데사우 바우하우스재단과 공동주최하여 무대디자인, 퍼포먼스를 통해 1920년대부터 30년대까지 바우하우스 운동을 조망하고자 한다. 특히 그로피우스가 디자인한 무대를 국내 최초로 재현하고 그 무대를 활용한 퍼포먼스를 공연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의 작가들이 참여하여 바우하우스의 영향이 현재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2014 전시안내 한국어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안내

과천관

덕수궁관

서울관

국립현대미술관 교육 안내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전시안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전시안내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은 한국 근·현대미술의 흐름과 세계미술의 시대적 경향을 동시에 수용하는 국내 유일의 국립미술관으로서 1969년 경복궁에서 개관하였습니다. 이후 1973년 덕수궁 석조전으로 이전하였다가 1986년 현재의 과천관에 현대적 시설과 야외 조각장을 겸비한 미술관으로 재탄생 하였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은 1998년 덕수궁 내에 분관인 덕수궁미술관을 개관하였고, 2006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어 전문성을 살린 고객 중심의 미술관으로 거듭 나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과거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치하였던 종로구 소격동 부지에 2013년 새로운 미술관을 개관하였습니다. 2009년 새로운 미술관 건립 계획이 발표된 이후 2010년 아이디어 공모, 건축현상설계를 거쳐 현재 미술관 건립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시실을 비롯하여 자료관, 프로젝트 갤러리, 영화관, 다목적 홀 등 복합적인 시설을 갖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다양한 예술장르를 수용하며 대중과 소통하는 열린 미술관으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휴관일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의 평일이 휴관 발권시간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 가능

3월~10월

· 화, 수, 목, 금,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9시 (야간개장 오후 6시 ~ 9시 기획전시 무료관람) 11월~2월

· 화, 수, 목, 금,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9시 (야간개장 오후 5시 ~ 9시 기획전시 무료관람)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9시 오시는 길

지하철 4호선 대공원역 하차

대공원역 1, 2, 3번 출입구 약 20분 도보 또는

4번출구 셔틀버스, 2번 출구 코끼리열차 이용

휴관일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의 평일이 휴관 발권시간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 가능 관람시간

· 화, 수,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7시 · 금, 토,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9시 (야간개장) 관람시간은 전시별로 달라질 수 있음

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2호선 시청역 하차 시청역 1번 출구로 나와서 약 4분 도보

덕수궁 정문(대한문) 통과

휴관일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의 평일이 휴관 발권시간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 가능

· 화, 목, 금, 일요일 : 오전 10시 ~ 오후 6시 · 수, 토요일 : 오전 10시 ~ 오후 9시 (야간개장 오후 6시 ~ 9시 기획전시 무료관람)

오시는 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하차 안국역 1번 출구로 나와서 약 14분 도보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하차 광화문역 2번 출구로 나와서 약 17분 도보 사진소장품특별전: 사진의 눈



국립현대미술관과 미술은행의 소장품으로 구성된 <사진의 눈>은 본다는 것의 의미를 파헤치는 동시대 사진의 몇 가지 경향들을 소개하는 전시이다. 시각의 문제는 곧 우리를 둘러싼 현실의 모습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느냐의 문제이다. 진위여부를 판가름할 수 없는 이미지의 범람 속에서, 즉, 더 이상 내 눈을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는 곧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013년 서울관 개관을 시작으로 과천관, 덕수궁관의 개관에 이어 2015년에 개관 예정인 청주관을 통합한 4관 체제를 앞두고, 동시대 시각예술 문화의 다양한 장르를 보다 폭넓게 수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전의 일환으로 사진, 공예, 건축 상설전시실에 이어 2013년 7월에 디자인을 위한 전시 전용공간을 마련하였으며, 그 첫 전시로 <디자인; 또 다른 언어>를 기획하였다. 이번 전시는 2013년 국제 디자인계가 가장 주목하는 우리나라 동시대 디자이너 10인이 참여하여 모두 신작을 제작함으로써 동시대 디자인 분야가 실험하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현대미술_거대서사Ⅱ

<한국현대미술_거대서사 II>는 한국전쟁 이후 1990 년대까지의 한국미술을 한국성, 민족성, 시간성 등 거대 담론으로 구성했던 <한국현대미술_거대서사 I>을 잇는 전시이다. 이번 전시는 1990년대 이후 한국미술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보고자 기획되어, 현실 인식의 예리한 시각을 견지하고자 하는 이 시대 작가들의 조형언어를 확인할 수

기대한다.

소장품특별기획전: 권진규,



국립현대미술관의 뉴미디어 소장품전<The Future is Now!>전은 국립현대미술관이 1987년 개관 당시부터 현재까지 뉴미디어 아트와 관련해서 만들어온 '미래' 를 짚어보는 전시이다. 뉴미디어 아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일천했던 시기에 선구적으로 이루어졌던 활동들을 되짚어보면서 이전의 활동들이 오늘날 뉴미디어 아트의 토양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나아가 지금 우리의 실천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라는 단순하면서도 엄정한 진리를



<TRANSFER 한국-NRW> 전시는 마누엘 그라프, 함경아, 정 승, 자샤 폴레, 유르겐 슈탁 등 5명의 한국, 독일작가의 작업을 통해 현대사회와 미술이 관계를 맺는 과정에 주목한 전시이다. 전시 참여 작가들은 독일과 한국이라는 상이한 배경 속에서도 강력해진 일상의 위상과 기술의 진화를 통한 인식의 확장이라는 현대미술의 가치를 공유한 작업을 선보인다. 관람객들은 '복사하고, 전화하며, 화승하고 이동하는' 현대미술의 다양한 과정과 결과물들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펼쳐진다.

이 전시는 사색의 깊이를 격조 높은 구상조각으로 보여주었던 조각가 권진규(1922~1973)와 현대조각의 표현기법과 조형실험을 확장시킨 조각가이자 교육자였던 김정숙 (1917~1991)의 기증작품특별전이다. 조각이 유입되고 정착되던 시기 한국미술사의 주요한 두 작가의 작품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기증해 주신 유족과 소장가의 깊은 뜻이 이번 전시를 통해 널리 공유되기를

디어 소장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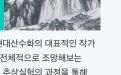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TRANSFER 한국-NR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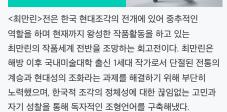
《이타미 준: 바람의 조형》전은 재일동포 건축가 이타미 준 (1937~2011, 한국명 유동룡)이 탐문했던 건축과 예술의 관계와 합일의 여정을 그리는 전시다. 미술관에 기증된 이타미 준 아카이브와 유족 소장품으로 구성된 이번 회고전은 일본에서의 1970년대 초기 작업부터 말년의 제주도 프로젝트까지 40여년에 걸친 그의 건축 세계를 아우른다. 건축 작업뿐만 아니라 회화, 서예, 소품 등 다양한 작품 속에 담긴 건축가의 심안을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에는 한국과 순간을 보여준다. 일본, 건축과 예술 사이의 경계를 넘나 든 작가의 자취가

2014 3 ~ 2014 7 한국현대미술작가: 조평휘



<구름과 산_조평휘>전은 한국 현대산수화의 대표적인 작가 조평휘의 60년간의 작업세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해보는 대규모 회고전이다. 10여 년간의 추상실험의 과정을 통해 얻은 현대적 조형감각을 바탕으로 펼쳐지는 역동적인 필세와 장엄한 구도를 특색으로 하는 그의 예술세계를 드로잉과 60여 점의 회화작품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

한국현대미술작가: 최만린



디자인전: 사물학 -디자인과 예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전시안내

디자인은 아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내용의 전달과 경험의 수용이 점차로 중요해지면서 두 분야는 계속해서 융화되어 가고 있다. 본 전시는 서로 다른 장르들의 이해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한국현대미술작가: 강찬균

신소장품 특별기획전

2012-2013

<강찬균>전은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조형감각으로 전통 금속공예의 맥을 이어온 1세대 금속공예가 '강찬균'의 60여년 작품세계를 총망라하는 특별 회고전이다. 전통적인 기법과 재료, 기술을 발견하고 실험하는 장인적 섬세함과 더불어, 작가 특유의 해학과 기지, 시적상상(詩的想像)이 표현된 100 여점의 작품을 시대별로 선보인다. 거칠고 투박한 소재들이 작가의 서사적 상상력과 만나 우화(寓話)로 변형되는 연금술적

한국현대미술작가: 이건용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은 향후 한국현대미술사의 역사적 정립을 목표로 지향하게 된다. <한국현대미술작가: 이건용> 전은 이러한 지향점에 부응하기 위하여 마련한 <한국 현대미술작가 시리즈>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전시이다. 본 전시는 40년이 넘도록 끊임없는 실험정신을 견지하며 한국 현대미술의 역사에서 독특한 자리를 지켜온 대가 이건용의 대표작들을 한 자리에서 조망하여 보는 무대를 선보인다.

한국현대미술작가: 김종성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건축상설전시실에서는 <한국현대미술작가 시리즈> 건축 부문의 첫 전시인 김종성 전을 개최한다. 한국건축의 대표적인 원로작가로 한국 모더니즘 건축의 발전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작가는 현대건축 4대 거장 중 한명인 미스 반 데어 로헤의 유일한 한국인 제자로도 알려져 있다. 본 전시를 통해 김종성의 삶과 작품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신소장품 특별기획전>은 국립현대미술관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수집한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이다. 중장기

및 연간 수집정책 하에 한국근현대미술과 국제적인 흐름

속에 있는 주요 작품을 수집하는 것은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사적·미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국립현대미술관은

가장 주요한 임무이다. 이러한 소장품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매년 <신소장품>전을 기획하고 있다. 2012년에는 다량의

사진작품이 기증되었고 현대공예 부문을 집중수집 하였다.

2013년에는 부문별 소장품 분석을 통해 동양화 부문을

올해의 작가상은 국립현대미술관과 SBS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여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수상제도로서,

한국현대미술을 대표할 역량 있는 작가를 전시하고

후원함으로써 한국현대미술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심사위원단의 작가 심층 인터뷰와 전시 분석을

미술가들이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세계적으로 발돋움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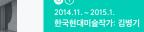
거쳐 최종 선정되는 이번<올해의 작가상 2014>를 통해 우리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보강하였다.

올해의 작가상 2014



<정범태>전은 한국의 리얼리즘 사진을 이끌어온 원로 작가 정범태의 작품세계를 조망하는 전시이다. 1928년생인 정범태는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 여러 언론사의 사진부 기자를 역임했으며, 한국전쟁과 4.19, 5.16등의 정치적 격동기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기록했다. 그는 현재까지도 한국의 전통 춤을 기록하는 사진작업을 활발히 진행하면서 명실공히 한국 리얼리즘 사진의 대표작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것이다.



김병기(1916~)는 한국근현대미술사에서 추상미술의 이론적 선각자, 교육자, 행정가로서 전설과 같은 존재지만, 낯설다. 서울대 교수, 한국미술협회 이사 등의 경력을 뒤로하고 1965년 도미한 김병기는, 일찍이 일본유학 중(1933~1939) 자기화한 아방가르드 정신을 작품에 구현하기 위해 타국 땅에서 여전히 고군분투 중이다. 풍경화와 정물화, 캔버스에 유채라는 장르와 재료 상의 한정에도 불구하고, 김병기는 집요할 정도로 형상과 비형상, 정신과 감각, 자연과 문명, 전통과 현재성의 경계를 넘나들며 팽팽하게 맞서는 이 상반된 힘들을 긴장 속에 묶어 둔다. 1950년대에서 현재에 이르는 그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이번 전시에서, 관람객은 자발적인 망명과 노년의 지혜에서 얻은 예술과 인생에 대한

신중한 확신과 예술가로서의 성숙한 주체성을 만나게 될

국립현대미술관 안내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전시안내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전시안내